

“올해의 선수도 1승부터 시작이죠”

2010 정상을 향해 달린다 ① 골프지존 신지애

“고향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시즌은 ‘올해의 선수’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평 골프고 출신 ‘골프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호주로 전지훈련(4일)을 떠나기 앞서 광주일보와 이메일을 통해 당찬 새해 포부를 밝혔다. 신지애는 또 “LPGA 투어에 전념하다 보니 고향에 자주 찾아볼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성공하기까지는 고향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팬들의 격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6주간의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는 신지애는 이 기간 중 체력단련으로 근력을 키워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는데 주력한다.

신지애는 겨울훈련 계획에 대해 “최근 몇년 동안 동계훈련 중 체력보강 보다는 유연성과 균형감각 위주로 훈련을 하다보니 시즌 후반 급격한 체력저하를 실감했기에 올해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체력가꾸기에 몰두한다는 계획이다”면서 “체력을 키워서 근력으로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연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지애에게 2010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한 해이다. 매년 올해의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을때마다 “매대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시즌 꿈은 ‘올해의 선수’라고 이미 지난해 밝혔었다. 이렇게 일찍 목표를 세운 만큼 올 동계훈련에 참여하는 각오는 어느해와 달리 진지하고 결의에 가득차 있다.

“
조급하지 않게
한단계 한단계 밟다 보면
좋은 결실 맺게돼요
“

하지만 몇 승을 거둘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전과 다른없이 “1승이 목표”라고 짧게 답한다. 신지애는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몇승하겠다는 다짐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승 없이는 2승, 3승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비록 그 1승이 늦게 이뤄진다 해도 조급해 하지 않고 한단계 한단계 밟아가다보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다”면서 그만의 ‘1승 철학’을 강조한다.

사실 지난해 신지애의 ‘1승 철학’은 LPGA 투어 첫 데뷔무대에서 상금왕·다승왕·신인왕 등 3관왕의 대기록을 달성한 원동력이 되었다.

신지애는 이번 호주전훈련에 대비해 홍삼과 마늘 엑기스 등 평소 즐겨먹는 ‘보양식’을 챙겼다. 체력보충을 위해 오랜기간 동안 섭취해 온 그녀만의 ‘필수 영양제’ 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회 출

전에 앞서 먹었던 매실즙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다.
어느해 보다 달리 체력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신지애가 무서운 뒷심을 발휘한다면 지난해 보다 더 큰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즌 마지막 대회까지 ‘고공비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LPGA 투어 사상 첫 대기록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지애에게 또하나의 힘이 되는 거라면 지난해 서울대에 합격한 동생 지원이의 힘찬 격려를 받게 됐다는 것. 지난해 동생의 합격 소식에 마치 자신이 대회 우승 한 만큼이나 기뻐하는 신지애는 “동생의 입시에 대한 큰 부담을 덜고나니 올해는 어깨가 훨씬 가벼워졌다”면서 “하지만 동생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올해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시 결의를 다진다.

그의 다짐에 팬들 또한 강한 신뢰를 갖는다. 그간 신지애가 확실한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골프를 시작한 2004년 함평골프고 1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신지애는 그해 아마추어 대회에서 4승을 거두며 이를 석자를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아마추어 대회 6승에다 국내 프로대회(SK엔크린 인비테이셔널)까지 제패하며 국내 골프계를 놀라게 했다.

그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 됐다. 2006년 국내 여자프로골프 사상 최초로 5관왕을 차지했고, 2007년엔 무려 9승을 거두는 괴력을 발휘했다. 2008년엔 국내 무대서 6승, LPGA 투어에서 3승, 일본에서 1승 등 국내외를 오가며 10을 올리는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다.

이처럼 막대한 내공을 쌓은 신지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라운드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일기자 swseo@kwangju.co.kr



남아공 전지훈련 출국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파주 NFC에서 열린 국가대표축구팀 훈련에서 이동국을 비롯한 선수들이 공백기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16강 넘어, 8강·4강...

오늘 남아공 전후 출발... 잠비아 대표팀 등과 평가전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새해 시작과 함께 힘차게 첫 결승을 내디뎠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남아공 및 스페인 전지훈련을 위해 3일 낮 경기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였다. 선수단은 4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남아공으로 떠난다.

이번 해외 전후에 참가하는 선수는 지난달 26-27일 파주 NFC에서 체력 테스트와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선발된 국내파 21명과 일본 J-리그 소속 4명 등 총 25명이다.

이번 전후 기간 남아공 월드컵 본선 때 베이스캠프를 쓸 루

스텐버그에 여장을 풀 대표팀은 잠비아 대표팀 및 현지 프로팀 등과 세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이 기간 훈련, 숙박, 이동 등을 모두 월드컵 본선 일정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 선수들에게는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대표팀은 이후 16일부터는 스페인 말라가에서 담금질을 이어가면서 핀란드, 라트비아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치르고 25일 귀국한다.

지난주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일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태극전사들은 새해를 맞아 저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모였다.

스트라이커 이동국(전북)은 “빠듯한 전후 일정을 잘 소화하고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

겠다”라면서 “선수들 모두 새로운 목표에 한 발짝씩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월드컵이니만큼 대회에 꼭 참가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호랑이 해를 맞아 1986년생 호랑이 띠인 수비수 김근환(요코하마 F·마리노스)의 각오도 남달랐다. 선배로부터 선물받았다는 호랑이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파주NFC로 들어선 김근환은 “내 위치는 대표팀에서 제일 아래라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도 월드컵 참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 전후 기간 내 꿈을 펼쳐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미드필더 김두현(수원)은 “뭔가 이뤄야 하는 한 해다. 개인적인 영광도 영광이지만 대표팀이 국민 염원대로 월드컵 16강, 나아가 8강, 4강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청용 새해 첫 축포

볼턴 FA컵 32강 진출

‘블루 드래곤’ 이청용(22·볼턴 원더러스)이 2009-2010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64강전) 링컨시티(4부리그)와 홈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청용은 3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볼턴의 리복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6분 이반 클라시치의 도움을 받아 오른쪽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FA컵에서는 첫 골이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까지 포함하면 영국 진출 이후 네 번째 골이다. 지난해 12월16일 웨스트햄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후 18일 만의 득점이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볼턴은 후반 4분에 상대 자책골로 1-0을 만든 뒤 이청용의 추가골 등을 더해 4-0으로 대승, 32강

에 올랐다.

전반 13분에도 강력한 오른쪽 슈트로 한 차례 링컨시티의 골문을 위협했던 이청용은 후반 6분 페널티지역 안쪽 11m 정도 거리에서 클라시치의 패스를 오른쪽 슈트로 연결해 2-0을 만드는 제2골을 뽑아냈다. 팀을 FA컵 32강에 안착시키는 소중한 득점을 올린 이청용은 후반 35분에 타미르 코헨과 교체됐다.

볼턴은 이어 후반 38분에 개리 케이힐, 종료 직전에는 마크 데이비스가 한 골씩 더 보태 4-0 대승을 마무리했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2골, 1도움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는 이청용은 이로써 7일 ‘강호’ 아스널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활약도 예고했다.

조원희(27)가 속한 위건 애슬레틱도 헐시티를 4-1로 크게 누르고 32강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北축구, 카타르 4개국 초청대회 우승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북한축구가 카타르 4개국 초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기본 종계 2010년을 시작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준비에 한창인 북한은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끝난 카타르 4개국 대회 3차전 이란과 마지막 경기에서 전반 42분 메르자드 마단치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앞선 말리, 카타르와 경기에서 간판 골잡이 홍영조(FK 로스토프)의 결승골로 각각 1-0으로 이기며 2연승을 거뒀던 북한은 이날 패배로 2승1패가 됐다. 하지만

카타르가 말리와 득점없이 0-0으로 비겨 북한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카타르와 말리는 나란히 1승1무1패가 돼 2, 3위 자리를 나눠 가졌고 압선 고트비 감독이 이끄는 이란(1승2패)은 최하위로 대회를 끝냈다.

북한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25만 달러의 상금(총상금은 60만 달러)도 챙겼다.

8강 신화를 쓴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북한은 남아공월드컵에서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와 함께 G조에 편성됐다.

/연합뉴스

가진 2009.12.20~2010.02.28
100% 환불가능
(주)우동관광여행사
전화: 062-383-9042

제주여행 이지 할인 받고 가자!!

1. 제주여행 패키지 (제주도 3박4일) 원가 250,000원 할인 20% 할인 230,000원	2. 제주여행 패키지 (제주도 3박4일) 원가 250,000원 할인 20% 할인 230,000원	3. 제주여행 패키지 (제주도 3박4일) 원가 250,000원 할인 20% 할인 230,000원
--	--	--